

남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의 필요성 탐색

박재현 성명대학교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를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점과 분석 기준에 의해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관찰의 프레임은 ‘수직적 질서’와 ‘집단’의 중시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장 유유서(長幼有序), 부부유별(夫婦有別) 등의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를 통 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 시대, 제국주의의 양육강식 논리로 무장한 일본의 지 배, 그리고 전쟁, 미 군정기, 그 후 군사정권, 엘리트 중심의 관료주의 체제 등 근현대사를 거치며 국가 간 권력이든 국가 내 권력이든 강력한 권력 구도의 틀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며 ‘수직적 질서’와 ‘집단’을 중시하는 정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¹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군사주의(militarism)’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를 해석하고자 한다.² 징병

1 한국의 군대 문화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손수태(1998: 97-99)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2 사회학 사전에서는 군사주의를 ‘군사조직, 군사적 가치, 전투에서의 영광·명예의 가치가

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남성은 군복무를 통해 남성성을 인정받고 한국 사회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군 복무 기간이 남성의 생애 주기에서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여 의사소통의 균형 감각과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직적 질서와 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은 군대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분위기의 가정생활, 경쟁이 강한 학교 생활 등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모두는 그러한 분위기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되어 왔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2년 동안의 군 복무로 군대 문화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군대 문화는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도 군사주의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체득되어 최고로 증폭된 군사주의 의사소통 방식이 전역 후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남성의 생애 주기에 고스란히 잔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직장의 조직 의사소통 문화에서, 가정의 부부간,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문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은 이러한 군사주의가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군대 인권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윤민재, 2008), 여성학의 관점에서 군사주의가 끼친 부정적 영향(권인숙, 2000; 김엘리, 2002; 김현옥, 2002; 오미영, 2002, 2003; 이미경, 2003; 나윤경, 2005ㄱ, 2005ㄴ), 학교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군사주의의 행태(정구철, 1999; 박종률, 2007; 이남미 · 이홍구, 2009),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군의 대비(최선애, 2010; 정민화, 2010; 박용호 외, 2013) 등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 왔다. 사실 이러한 드러난 피해에 내재된 근본적이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

한 사회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영복, 2000).

해자가 이러한 현상을 지각할 수 있는 민감성이 부족하여 본인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하는 데 필요한 상위인지를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도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당사자 또한 가부장적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주의적 선생님의 제자로서, 고압적인 상관의 부하로서 피해자이었으며, 시간이 지나 자신 역시 그러한 위치에 섰을 때는 가해자로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학생에게, 부하 직원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결정적인 지점을 군사주의가 정점에 이른 군 복무 직후로 상정하였다. 즉, 군 복무 후 사회로 재진입하는 시기에 군사주의에 물든 의사소통 방식을 완화하는 특정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개발하거나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의 문제를 진단하여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템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군사주의의 속성

선행 연구 중 군사주의와 군대 문화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홍두승(1993: 59)에서는 군사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군사 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져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지 못하였다고 하며 군사 문화와 군대 문화를 구분해야 하며 군대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동훈(1995: 174)에서도 군대 문화를 “군 조직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

자들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 그 안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함을 언급하였다. 손수태(1998: 90-91)에서도 군대 문화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군대 조직이 지닌 특수한 문화를 의미하며, 군사 문화는 군대 문화로 인해 일반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된다며 둘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중립적이고 고유한 가치로 인정하는 군대 문화와는 달리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군사주의의 속성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언급한 것은 강한 권위주의, 집단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획일성, 완전무결주의(경직성), 공공 조직주의, 권력 지향성, 목표 지향성 등이다.

군대 조직 문화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민진(2008, 2011)이 있다. 민진(2011)에서는 군대 조직 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공통된 부분이 많으나 집권적 의사결정, 승패를 강조하는 전투적 사고, 남성의 강인함을 중시하는 남성 우월성, 적군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위협의식 등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1. 군대 조직 문화의 특성(민진, 2011: 99)

분야	조직 문화 특성	특성별 세부 요소
국가, 조직, 집단, 개인관	집단주의	조직우선주의, 집단성과주의, 국민군대주의
조직 관리	계서적 권위주의	위계질서, 집권적 의사결정, 삼의하달
	의식주의	외형중시, 형식주의, 의례강조
전투 및 전장	전투적 사고	승패강조, 전투능력중시, 남성(우월)성
	위험 및 위협의식	생사위험성, 위협의식, 안전제일주의
조직 환경 및 체제	폐쇄주의	독자사회성, 폐쇄성, 환경적응성, 공간적 제약
	문화적 정체성	민군가치관차이, 민군생활차이, 민군법규차이

이러한 관점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측면의 군사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군대 문화의 긍정적 측면으로 국가의식 및 민족의식, 권위와 질서의 존중, 희생과 봉사 정신, 협동심, 책임감, 인내심, 독립심, 애국심, 명예심, 적극적 사

고, 단체 생활을 통해 개인의 욕망에 대한 자제력 등을 제시하고 이것들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손수태(1998: 16-25)에서는 군대 생활은 개인의 한 생애에서 청년기의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규범, 가치, 이상에 동조하는 ‘제도적 자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군 조직 내의 사회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타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며 길러진 협동심과 사회성이 전역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성격으로 길러지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김용주(2003: 112)에서는 갈등과 부조화를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일과 시간의 교육 훈련과 더불어 내무 생활이라는 비형식적 기제를 통해 군 조직의 문화나 단위 조직의 풍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유발된다고 하였다.

2. 군의 평생교육

한국 사회에서 군은 문해 교육, 시민 교육 등 시대적 필요에 따른 평생 교육을 이미 시행해 왔다. 한국군의 평생교육 변천 과정을 연구한 박효선(2014: 116-130)에서는 군 평생 교육의 시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태동기(해방 이후~1961년)에는 당시 40~50%에 달하는 무학력 병사를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과 정신 교육을, 2단계(1961~1971년)에는 문맹 퇴치, 기술 습득, 반공 교육을 실시하였다. 3단계(1972~1989)에는 1973년 이후 저학력자 입대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군의 국민교육 기관의 역할은 축소되어,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교육과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였다. 1982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입대 정책이 시행되어 세계 최고의 우수 인재로 구성된 군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4단계(1990~현재)에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습하는 병영 강한 군대 육성’을 표방하며 개인의 단절 없는 생애 능력 개발, 군 인력 정예화, 전 국민을 위한 평생 학습 국가 실현, 개인 자질 및 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 산업 인력 배출에 중점을 두

어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다.³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166)의 ‘2013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군 평생 교육 정책 추진 체계는 ‘학습의 연속성 보장, 산·학·군 맞춤형 기술 인력 육성,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여 군 복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개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용주(2003)와 이정표·박윤희·이병우(2004)에서는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학교-군-직업 세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군 교육훈련을 평생교육의 기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주로 전역 후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직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수한 프로그램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군 경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주로 외국어나 자격증 분야에 집중되어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⁴ 주로 지휘관 등 직업 군인의 통솔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대부분이다. 군 조직의 과업 환경을 고려한 글쓰기나 말하기 등 직무 관련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박재현(2009)이 있다. 즉, 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분히 직업 세계 진출을 위한 직무 역량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3 대표적인 군 평생교육 정책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종인 외(1997), 21세기 대비 군 평생교육체계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이희수 외(2007),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백은순 외(2007), 군 평생교육체계 정립 및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왕준 외(2012), 장병 자기개발을 위한 민관군 협력 지원방안 연구, 육군본부.

4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이순형 외, 2002)와 동료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양미진·송미경·신효정, 2009) 정도가 있다.

3. 군사주의의 부정적 영향

군의 평생교육적 접근이 다분히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직무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에서는 군사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군인의 인권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있다. 집단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인은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로 여겨져 존중 받지 못하고 공론화되지도 못하였던 군의 인권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권인숙(2000)에서는 군의 횡일성, 형식성, 강압성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억압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양산하며, 징병제의 도구화 개념, 서열과 위계의식이 강한 문화에서의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 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남성성을 극대화하고 여성성을 차별화하는 부분에서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함을 언급하였다. 윤민재(2008)에서는 구타, 언어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살인, 자해, 자살 사고 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사고가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의문사가 되는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차원에서 군의 폐쇄적 구조와 더불어 군 구성원의 의식과 가치관 등 태도적 차원에 내재된 문제의 원인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 경험을 한 자로서 긍정적 가치를 부각하려는 연구와는 달리 군의 테두리 밖에서 여성학의 관점에서 군사주의로 인한 부정적 폐해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권인숙, 2000; 김현옥, 2002; 김엘리, 2002; 이미경, 2003; 오미영, 2002: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 학교 선배, 남편, 직장 상사 등 여성의 생애에서 남성 위주의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핵심 원인으로 군사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이들 연구 중 복학생을 대상으로 전역 후 학교에 돌아와 학과나 동아리 등에서 여자 후배와 어떤 의사소통적 갈등이 유발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나윤경(2005 ㄱ, 2005 ㄴ)에서는 남녀공학대학교를 남성 중심성 위주

의 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 보고 폭력 중심의 서사, 위계적 선후배 관계, 군 복무 후 여성에 대한 인식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특히 나윤경(2005)의 연구는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 대학생들은 생애 발달에서 성인 초기의 단계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재학 중 내면화한 가치가 성인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을 성평등적 민주적인 가치가 기능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대학과 군사주의의 매개자인 복학생들에게 군사주의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돋는 적응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남성 생애주기 중 군사주의 성향이 가장 증폭된 상태로 일반 사회로 재진입하는 단계인 전역 직후 복학 시기를 교육적 처치의 적기로 판단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군사주의로 인한 부정적 양상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 특히 의사소통 교육 차원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군사주의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의사소통 문화에 초점을 두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III. 연구 방법

군 복무를 마친 남학생이 대학에 복학하여 여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남자 복학생과 이들과 모둠 활동을 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방향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양방향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A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한 내용을 B집단에게 제공하고 B집단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는 연구 방법이다. A집단의 생각에 대한 B집단의 생각을 풍성하게 읽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복학생들은 후배 여학생들과의 소

통 상황에서 느낀 바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어떤 장면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의 단서가 되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정보와 양방향 포커스 집단 인터뷰 구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집단(군 복학생)	B집단
복학생1(포병 대대, 병장, 24세)	여학생1(21세)
복학생2(사단 신병교육대, 병장, 23세)	여학생2(22세)
복학생3(동원사단, 병장, 23세)	여학생3(22세)
2014. 11. 27. 14:00~14:47	2014. 12. 3. 16:00~16:32

그림 1. 연구 참여자 정보와 양방향 포커스 집단 인터뷰 구도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서울 소재 S대학교 군 복학생 3명과 같은 학과 여학생 3명이었다. A집단의 포커스 집단 인터뷰 녹음 내용을 전사하여 B집단에게 제공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B집단의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논의의 초점화를 위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남녀가 함께 구성원으로 활동한 대학 수업의 조별 과제로 한정하였다. 식사나 담소 등 일상적 대화는 제외하고 특정한 과업 완수를 위해 남녀가 섞인 공동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화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대화 대상도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모둠 내의 동료 관계로 상정하였다.

A집단의 복학생들에게는 ‘군 복학 후 후배 여학생들과 모둠을 이루어 과제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후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대화 장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별 과제의 진행 단계에 따라 1) 모둠 내에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교환하는 의견 교환 장면, 2)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는 의사 결정 장면, 3) 과제 완수를 위해 규칙과 절차를 정하며 관리해 나가는 조직 관리 장면으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할 때는 우선 복학생의 생각과 여학생들의 생

각이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갈등의 단초가 되는 지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IV. 연구 결과

모둠 활동의 세 장면에 따라 복학생의 생각과 이에 대한 여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학생의 생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 각항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1. 의견 교환 장면

1) “저는 항상 정리하는 입장인 거예요.”

의견 교환 장면에서 복학생의 생각 중 두드러진 것은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 여러 사람 의견 들어 보고 거기서 절충안을 찾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논의에서 벗어나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정해진 옳은 길이 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군대 갔다 와서는 이런 걸로 의견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일만 키우고 수습도 안 하면서 공론화만 시키는지. 복학하자마자 혼자 후배들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완전 군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후배 여자애들이 얘기하니까 일단 들어 보자. 열린 마음으로. 난 학교에 없었고 얘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좋은 의견일 거다 해서 들어 봤는데 어 이게 완전 뭘 얘길 하는 건지. 이런 얘기 하다가 쭉 가다가 끊겨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항상 정리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애들끼리 결정을 못하고 있을까.(복학생2)

위의 복학생2의 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의견을 가능하면 경청하려 했던 군 복무 전과는 달리 복학 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해지며 타인의 생각 중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선배이며 군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장면에서 다분히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여 학생1도 복학생들이 주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예전에 조별 활동을 할 때, 한 명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한 명은 안 갔다 온,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여자인 상황이었는데, 우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죠.”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반면에 미필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견을 많이 내세우는, 그런데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신 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접더라고요.(여학생1)

공동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고 있고 리더를 도와 협력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능력과 경험 등 합의에 의해 리더가 결정되고 리더는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리더의 주도권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리더의 지위를 얻지 못한 자가 혼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때 공동체 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2) “최대한 돌려서 말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의견을 교환하는 장면에서 복학생들은 직접적인 언어 표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대에서는 의미가 바로 전달되어야 하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도 않으니까요. 군대에서는 싫은 소리 한 다음에도 미안하다고 꼭 안 해도 같이 일할 때 웃으면서 일하잖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B해 오면 어떡해. A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얘랑 일하기 힘들어져요. 소문 돌고. 그럴 때는 최대한 돌려서 말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얘한테 빨리 의미를 전달해야 할 텐데. 남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여자들한테는 정말 완곡하게 해야 해요.(복학생2)

복학생2는 여학생에게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라 완곡하게 표현해야 힘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상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복학생들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학생1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공격적인 말투는 반발심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근데 이 사람이랑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게 있잖아요. 게다가 아직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말투가 우선 좀 세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데 ⑦그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좋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잘 못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라고 하면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반발 심리가 작용하는, 자기도 틀렸으면 민망하고 충분히 고치고 올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민망함을 주는 것에 대한 반작용.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여학생1)

여학생1은 상대를 민망하게 하는 복학생의 직접적 언어 표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복학생은 직접적 언어 표현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학생은 상대의 반감을 사고 부작용을 유발하는 비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내

용적 메시지에 수반되는 관계적 메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의사소통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있다. 여학생1은 ⑦에서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표출됨을 언급하고 있다. 복학생의 직설적 언어 표현과 상대를 민감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짜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여학생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의사 결정 장면

1) “그냥 높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의사 결정의 상황에서 복학생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랫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경험도 더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날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⑤특히 결정을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냥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자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복학생1)

특히 ⑤과 같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높은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여학생2의 경우에는 여학생들끼리는 그러지 않지만 복학생 선배들과 모둠이 구성되면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하였다.

여학생들이 많은 조가 구성이 된다면,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경험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 선배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⑥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어느 정도 선배라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여학생2)

복학생들은 집단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학생들은 복학생들에 비해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3의 경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복학생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험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경험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배제한 것 같아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과제 같은 거 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는 전 좀 제 고집을 내 세우는 편이거든요.(여학생3)

여학생3은 군 경험과 학교 경험은 다르므로 무조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선배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여자 후배로서 의견을 강하게 말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지점이다. 군 복학생들은 나이도 많고 조직 문화 경험도 많은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학생들은 권위를 인정하지만 마지못해 따르거나,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해당 분야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이 많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집단에서 복학생1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결정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여학생3과 같이 그 경험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게 논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2) “그냥 오빠들이 정해 주면 군말 않고 따라요.”

복학생들은 의사 결정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며 자

신들이 결정할 때 특별한 불만 없이 따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과에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과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오빠, 저 선택 장애예요. 선택 잘 못해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지위가 높든 낮든 옳은 말하는 사람을 따라 가는 게 맞는다고 봤는데 이제는 기왕이면 그 사람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면 높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 학생들은 결정을 예비역 오빠들한테 의지하는 것도 있고, 오빠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예비역 오빠들이 정해 주면 그걸 또 군말 않고 따라 요.(복학생2)

하지만 이에 대한 여학생2의 반응은 달랐다.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겨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여 배려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자기 생각이 속으로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나 선택 못하겠으니까 네가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제안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이건 어때요?”라고 말 하는 게 조금 배려하는 입장이라서. 남자들은 조금 우왕좌왕하는 걸로 볼 수 있 을 것 같아요.(여학생2)

Lakoff(1973)의 예의 이론(politeness theory)의 핵심은 ‘① 강요하지 말라, ② 선택권을 주라, ③ 기분 좋게 하고 친절하라’이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예의를 갖춘 대화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항에 대한 복학생과 여학생의 인식 차이 역시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복학생2는 여학생들이 군말 않고 따른다고 하였지만 여학생2는 배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양자의 상호작용에서 지속되거나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3. 조직 관리 장면

앞서 다룬 의사 교환 장면과 의사 결정 장면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모둠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거나 업무를 분장하는 조직 관리 장면에서의 인식에서도 복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여자들은 진짜 핑계가 엄청 많아요.”

복학생3의 경우 규칙을 먼저 정하지만 이를 잘 어기며 핑계를 대는 여학생들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일의 단계별 규칙을 정하는 게 마음도 편하죠. 언제까지 자료 모으고 PT는 언제까지 주고 이런 것은 정하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자들이 규칙을 더 많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아니면 못한다고 하면 내가 다음에 뭘 할 게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진짜 핑계가 엄청 많아요. “오빠 저 언제까지 하면 안 될까요?” 모임을 해도 항상 늦는 건 여자고. 그러다 보니 여자애 중에 리더십 있는 애들이 지각비를 정한다든지 자기들끼리 규제가 안 되니까 규제 방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그게 얼마나 민폐인지 아니까. 지각비를 내게 되면 그냥 쿨하게 내고. 변명 없이.(복학생3)

이에 대해 여학생1은 그러한 양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규칙 위반 시 상대를 강제하지 못하는 원인을 관계성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남자랑 여자랑 같은 조에 있고,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세우는 쪽은 여자 쪽인 거 같아요. 하지만 그걸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못 지켰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남자는 “이걸 못 지켰으니까 이걸 내야 돼.” 이렇

게 확실히 내는 건 사실인거 같은데, 여자들끼리는 아무래도 친밀감 때문에 쉽게 “지각비 내.”라고 못하는 상황이 많기는 한 거 같아요.(여학생1)

이러한 부분은 집단 내부에서 규칙의 제정, 준수, 위반 시 행동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특히 규칙 위반 시 친밀감을 드러내며 사정을 설명하는 여학생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복학생들은 중립적인 의미의 ‘정황 설명’이라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정한 규칙이 위반되었을 때 동일한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복학생2는 군 복무 후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대화 방식보다는 조직의 사기를 우선시하는 대화 방식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말을 좀 더 배려하고 부드럽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소대장한테 많이 혼나면서 느꼈던 게. 소대장이 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톡방에 얘기할 때 “안 된다는 얘기할 거면 하지 말고. 그냥 되는 사람만 말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난 네 사정 배려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되는 사람만 데려갈 거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얘기 나오면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너희 모두 배려하다 보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 전체적인 집단을 위해서는 약간 이런 식의 대화도 필요해요.(복학생2)

3) “물로 보이면 안 되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복학생3 역시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체면 욕구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그게 좀 군대를 다녀와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고. ‘내가 선배인데, 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④내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어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왜 안 되는데? 그럴 거면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난 기분이 좀 나빠.” 이런 식으로 ⑤물로 보이면 안 되니까.(복학생3)

복학생3은 ④과 ⑤에서처럼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복무로 인해 조직 내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이 강해져 자신의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고 이러한 위치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어,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말하는 게 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정을 들어 보고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개인톡을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저는 그게 전체 집단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⑥‘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 ‘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여학생2)

위의 복학생2와 복학생3의 발언에 대해 여학생2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조직의 사기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⑥처럼 복학생들의 생각이 그러한지 전혀 몰랐으며 복학생3의 “물로 보이면 안 되니까.”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듯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인식과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인식이 충돌할 경우 역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군 복학생의 인터뷰 대화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의 소지가 될 지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남녀 학생 사이에도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학생들은 주로 군 복무 이전에 비해 군 복무 후 형성된 자신의 견해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여학생들은 군 복무 전의 또래 남학생과는 다른 복학생 남자 선배에게서 느끼는 바를 진술하였는데, 군 복무가 이 둘의 관계에서 발생된 인식의 차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군 복무를 통해 형성된 남성의 군사주의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졸업 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타인과 소통할 때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독선적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을 중시하며 과업의 성취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첫째, 군사주의의 의사소통 문화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명하복의 군대 의사소통 문화 속에서 체득된 대화 방식이 과업을 완수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반발을 초래하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 관계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하기 위한 상위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적인 것이므로 일방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단편적인 기능의 숙달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집단 구성원의 결속과 과업 완수에 어떤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위인지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의사소통 방식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사적 민감성을 신장해야 한다.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둔감함이나 지나치게 고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과민함은 바람직한 대화에 장애가 된다. 수사적 민감성이란 상대를 민감하게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은 단순히 해야 할 것과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한 행동 항목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이렇듯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민감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는 예비역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여학생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론 설명보다는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제 대화를 분석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인권, 남성성과 여성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위계질서 등 핵심으로 토론의 논제를 만들어 교육 토론을 시행해 봄으로써 자신의 신념과 다른 입장에 서 보고 이를 응호하는 경험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대 조직 문화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며, 책임감, 리더십, 규칙 준수 등 군 복무를 통해 길러지는 긍정적 효과를 부인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측면의 효과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의사소통 문화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져 두 집단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긍정적 차원의 능력은 십분 발휘하면서도 이 연구에서 주목한 부정적 차원에 대해서는 섬세한 언어 사용 의식을 함양하여,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문화가 다양성의 정도가 심화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논문은 2015. 1. 31. 투고되었으며, 2015. 2.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3.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복(2000),『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권인숙(2000),「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여성과평화』1, pp. 133-161.
- 김엘리(2002),「한국의 군사주의와 성」,『여성과평화』2, pp. 132-161.
- 김왕준 외(2012),『장병 자기개발을 위한 민관군 협력 지원방안 연구』, 육군본부.
- 김용주(2003),「성인 평생교육기제로서 군 교육훈련의 의의와 발전 방향」,『평생교육학연구』9(3), pp. 101-122.
- 김현옥(2002),「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재생산과 성별 경험」,『한국여성학』18(1), pp. 71-107.
- 나윤경(2005 ㄱ),「군사주의가 재현되고 실천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 평생교육학적 개입 장(場)」,『평생교육학연구』11(4), pp. 1-32.
- _____(2005 ㄴ),「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성」,『한국여성학』21(2), pp. 181-222.
- 민진(2008),「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국방연구』51(3), pp. 61-94.
- _____(2011),「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한국조직학회보』8(3), pp. 91-121.
- 박용호·신혜연·배현경·조대연(2013),「군 지휘관 대상 다문화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탐색적 모델 연구」,『Hrd연구』15(1), pp. 57-81.
- 박재현(2009),「군 조직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교육 방향」,『사회언어학』17(1), pp. 159-183.
- 박종률(2007),「개선되어야 할 체육 수업 문화 분석」,『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14(4), pp. 25-42.
- 박효선(2014),「한국군의 평생교육 변천과정 평가분석 연구」,『군사논단』77, pp. 107-143.
- 백은순 외(2007),「군 평생교육체계 정립 및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수태(1998),「군대 문화와 사회문화」,『행정논집』26, pp. 87-115.
- 양미진·송미경·신효정(2009),「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청소년상담연구』17(1), pp. 1-13.
- 오미영(2002),「군사주의와 젠더화된 위계질서」,『여성연구논집』13, 91-111.
- _____(2003),「군사주의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여성연구논집』14, pp. 99-126.
- 윤민재(2008),「한국사회의 군대 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담론 201』11(1), pp. 165-193.
- 이남미·이홍구(2009),「체육대학 신입생 길들이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22(4), pp. 19-43.
- 이동훈(1995),「한국 군대 문화 연구」,『韓國社會學』29, pp. 171-198.
- 이미경(2003),「한반도 분단구조 속의 여성: 가부장적 군사문화지배하의 남북한 여성」,『국제지역연구』7(2), pp. 229-252.

- 이순형 · 김광웅 · 한경혜 · 황혜신(2002), 「국군장병 대상 예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人間發達研究』 9(1), pp. 1-14.
- 이정표 · 박윤희 · 이병욱(2004), 「학교-군-직업세계의 이행 실태와 과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7(3), pp. 39-64.
- 이종인 외(1997), 『21세기 대비 군 평생교육체계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이희수 외(2007),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 정구철(1999), 『한국 학교체육에 내재된 군사주의적 특성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2), pp. 35-53.
- 최선애(2010), 「다문화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사회복지학』 3(1), pp. 93-113.
- 홍두승(1993), 「‘군사문화’와 ‘군대 문화’는 별개의 것이다」, 『한국논단』 50(1), pp. 59-63.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Univ. Press.

남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의 필요성 탐색

박재현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쳐 온 군사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예비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복학 후 후배 여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복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양방향 포커스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역 남학생들은 독선적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고 집단을 중시하며 과업의 성취를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면에 인색하며 주도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안타깝고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예비역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탈군사주의 의사소통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세 가지 교육 목표 설정 방향은 추후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군사주의, 군대 문화, 생애주기, 의사소통 문화, 의사소통 교육, 화법교육,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A Study on the Need of De-militarism Communication Culture Education Considering the Life Cycle of Men

Park Jaehyu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militarism hav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ommunication culture at workplace and at home in Korea and also to examine the need of de-militarism communication culture education to university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The study adopted a two-way focus group interview to analyze the point of possible conflict during the communication situation with women students after their return to the school. 3 male students who returned to the university after military service and 3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data were all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in the communication method that male students who completed the military service had a self-righteous and high-handed tendency not to consider others' emotion sensitively but focused on group directing the achievement of tasks. Regarding such tendency, female students who experienced interaction with them showed regret and anxiety of their way of communication because they lacked consideration of others and attempted to take initiative in their own. The research result can be used as an evidence of need of de-militarism communication culture education to university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The 3 education target directions extracted from this study result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specific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KEYWORDS militarism, military culture, life cycle, communication culture, communication education, speech instruction,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